

■ 2023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우수전시)
- 회의일시 : 1차) 2022년 12월 1일(목) 9:30~19:00
2차) 2022년 12월 8일(목) 9:30~19: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가나다순) : 기혜경, 김기수, 오연서, 우혜수, 최태만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조망하고, 현장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획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우수전시 지원사업에는 올해 총 39팀의 우수한 기획안이 접수되어 1차 서류심사에서 16팀을 선정, PT 및 인터뷰심의를 거쳐 최종 12팀이 선정되었다.

심의는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크게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기획자 및 참여자의 역량(40%), 둘째는 전시 기획 전반에 대한 평가(30%), 셋째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30%)이 그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공적자금이 기금으로 제공되는 사업이기에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과, 전시가 목적하는 바와 그것이 갖는 시의성과 영향력, 그리고 전시가 얼마나 내실있게 준비되고 있는지의 여부, 예산계획의 구체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심사위원들은 위와 같은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장시간 토론을 거쳐 역량있는 지원자의 우수한 전시기획을 선정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우수전시 지원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획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모사업이다. 올해도 많은 지원자들이 평소의 고민과 연구과제에 기반 하여 훌륭한 기획안을 응모하였고, 그로 인해 선정 과정에 많은 논의와 고민이 수반되었다. 특히, 많은 기획안들이 연례전 방식이나 전시라는 틀에 묶여 전형화된 형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시라는 형식 혹은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우리가 놓쳐 왔던 오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대안을 타진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현상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며 현상을 포용하고자 하는 등 미술계 저변의 다양한 흐름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본 사업은 5천만원과 1억원 정액지원 중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시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신청액과 전시규모간의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5천만원 신청 전시에 비해 1억원 신청 전시의 규모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선정액의 상대적인 형평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또는 ESG경영 관점에서 볼 때, 전시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를 지양하는 추세인데, 통상적으로 동시대미술을 다루는 국공립 현대미술관의 기획전시 기간은 짧으면 2~3달이며, 대관 전시의 경우에도 최소 3-4주 이상 전시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비추었을 때, 공공 기금으로 개최되는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기간을 짧게 계획한 기획안의 경우에는 전시를 충분한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했는지, 공공 기금 사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

고 있는지 의문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심의는 시각예술창작산실의 또 다른 지원사업인 <전시사전연구>(현. 창작의과정#시각예술)를 거친 몇몇 기획안들은 탄탄한 연구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전시 기획안이 도출되고 있어서 아르코 지원시스템의 상호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응모한 기획안들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기획자가 초기 아이디어를 도전적이고 실험적으로 확장시켜 흥미롭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전시기획 의도를 온전히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 서류심의 및 2차 인터뷰 심의 과정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며 기획의 독창성과 구체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시의적인 기획인가? 참여 작품이 얼마나 전시기획 의도에 부합하는가? 신작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기획의도와와의 상관성은 어떠한가? 전시를 비롯한 출판물, 기록물 등 결과물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예산계획은 적절한가? 관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소통의 방식을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전시가 개최되었을 때 우리 미술계 및 문화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 것인가?’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인터뷰과정에서 다양한 질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질의응답을 토대로 심의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지역 균형지원 등을 추가 고려하여 최종 팀을 선정하였다.

심의결과를 요약해 보면, 오랜 기간 고심하며 연구해 온 연구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반가웠던 점은 기획전의 장소 역시 다각화 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관객과는 차별화된 관객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였다. 기존의 전시 패러다임과는 다른 새로운 실험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미술계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더불어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기획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그룹들은 구체성과 도전성이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그룹들인 바, 전시라는 결과물을 관객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결과를 남기고자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더 나아가 지원 규모가 5천~1억이라는 큰 금액을 집행하게 되므로 예산규모에 걸맞는 세심한 계획아래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 드린다.

심의위원 일동